

화 첩

인민사수전의 최전방에 서시여

평 양 출 판 사

화 첩

인민사수전의 최전방에 서시여

주체111(2022). 10.

화첩을 내면서

도전과 시련의 련속이였다.

련이어 들이닥친 재해성폭우와 큰물피해, 악성비루스전파로 인한 대동란…

이 전례없는 국난속에서 우리 인민은 참으로 소중한것을 가슴벅차게 체험하였다.

그것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는한 두려운것도, 부러운것도 없으며 그 어떤 천지풍파가 닥쳐온대도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신이다.

돌이켜볼수록 인민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과 정을 안으시고 인민사수전의 최전방에 서시여 결사분투의 헌신과 로고를 바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뜨겁게 어려온다.

혹독한 자연의 광란으로 졸지에 집과 가산을 잃고 누구라 할것없이 어찌할바를 몰라하고있던 그 시각 인민들 생각으로 긴긴밤을 지새우신 우리 원수님.

지금과 같은 때에 다른 그 누가 아닌 우리 당이 그들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며 인민들이 겪는 고생을 함께 하고 그것을 덜어주기 위하여 그들곁으로 더 다가가야 한다시며 감탕길도, 위험천만한 협곡철길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인민을 찾아 떠나신 원수님이시였다.

그이께서 취해주신 은정어린 조치들에 의하여 국무위원장 예비량곡이 해제되여 수재민들에게 가닿고 인민에 대한 후더운 숨결이 맥동치는 공개서한을 받아안은 최정예수도당원사단이 피해복구현지에 투입되였다.

자연의 광란이 아무리 횡포하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우리 인민의 생명안전만은 절대로 다치게 할수 없다는 철석의 의지를 안으신 그이의 희생적인 헌신에 떠받들려 혹심한 자연피해를 입은 페허우에 사회주의선경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나는 눈부신 화폭이 펼쳐지게 되였다.

온 세계를 파국적재앙속에 몰아넣은 세계적인 보건위기속에서 우리 인민의 생명안전은 또 어떻게 지켜지게 되였던가.

아파하는 인민의 목소리를 제일먼저 들으시고 천만인민에게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시며 손잡아 일으켜세워주신 생의 은인, 운명의 수호자는 바로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였다.

그이께서는 세계적인 보건위기가 발생한 초시기에 벌써 그 위험성을 환히 꿰뚫어보시고 방역대전의 총사령관이 되시여 선제적이며 결단성있는 특대조치들을 취해주시였고 중요당회의들에서 우리 식의 독창적인 방역전략과 전술을 련이어 제시해주시였다.

방역장벽에 파공이 생기는 돌발적인 사태가 조성되였을 때에는 우리가 무엇때문에 필요한 사람들인가, 우리가 누구를 위해 목숨까지 바쳐 싸워야 하는가를 더 깊이 자각할 때이라고 절절하게 말씀하시며 불철주야 방역전장들을 찾고찾으시였다.

원수님의 따스한 체취가 어려있는 사랑의 불사약을 받아안을 때, 당중앙이 파견한 혁명군의들이 친혈육의 손길로 보살펴줄 때 우리 인민은 위대하신 어버이에 대한 한없는 고마움에 격정의 눈물을 흘리고 또 흘렸다.

정녕 그이께 있어서 우리 인민은 이 세상 전부였으며 목숨을 내대고라도 무조건 지켜야 할 사랑하는 혈육들이였다.

흔히 대재앙이 닥쳐든 곳에서는 패륜패덕이 판을 치고 절망의 한숨소리가 울려나온다고 하였지만 시련을 이겨낸 우리 인민들은 더욱 강해지고 화목해졌으며 집집마다에서 우리 원수님 만세, 로동당 만세, 사회주의 만세소리가 더 높이 터져오르고있다.

언제나 인민과 운명을 함께 하시며 자신의 운명까지 내걸고 지켜주시는 위대한 어버이의 품에서 우리 인민은 어제도 오늘도 그러했지만 래일도 끝없는 행복과 영광만을 누려갈것이다.

편 집 부



인민사랑의
위대한 힘으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지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주체104(2015)년 8월 27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확대회의에서 라선시의 큰물피해상황을 구체적으로 통보하시면서 인민군대가 라선시피해복구사업을 전적으로 맡아 당창건기념일전으로 완전히 끝낼데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 최고사령관 명령을 하달하시고 라선시피해복구전투지휘사령부를 조직하시였다.

라선시피해복구전투를 현지에서 지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주체104(2015)년 9월 17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군대가 최고사령관의 명령을 관철하겠다고 낮과 밤이 따로 없는 백열전을 벌림으로써 당에서 정해준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라선시피해복구를 끝낼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다고, 말그대로 폭풍처럼, 화약에 불이 달린것처럼 전투를 진행하고있다고 하시면서 건설장전역에서 창조되고있는 기적과 위훈은 온 나라 인민들에게 승리의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큰물피해를 입은 인민들에게 이미 살던 집보다 더 멋있고 현대적이며 훌륭한 살림집을 지어주자는것이 자신의 결심이라고 하시면서 라선시피해복구전투에서 기본대상인 살림집건설전투를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라고 지시하시였다.

위대한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국의 북변 라선땅에서 창조된 기적적승리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을 심장마다에 새겨안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인민들과 군인들의 힘찬 투쟁에 의하여 한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라선시 선봉지구에 사회주의선경이 펼쳐졌다.



사회주의선경마을로 훌륭히 일떠선 라선시 선봉지구 백학동을 돌아보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주체104(2015)년 10월 7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휘관들과 일군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며 당창건기념일전으로 라선시피해복구를 끝낼데 대한 명령을 관철하느라 수고들이 많았다고, 자신께서 새로 건설한 살림집들을 먼저 돌아보아야 마음이 놓일것같아 찾아왔다고 하시면서 오늘 여기로 오는 발걸음이 정말 가벼웠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새로 건설한 살림집들이 본래집들보다 좋은가, 구들에 불이 잘 드는가, 물은 잘 나오는가를 세심히 알아보시고 모든 살림집들을 인민들이 행복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는 훌륭한 보금자리로 건설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군인건설자들이 고향집, 고향마을을 꾸리는 심정으로 큰물피해복구전투를 정말 잘했다고, 이번 전투는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우리 인민군대의 사상정신적, 도덕적풍모를 더욱 힘있게 과시하는 과정으로 되였다고 하시면서 이제 남은것은 새집들이라고, 군인들이 인민들의 새집들이를 도와주는것을 비롯하여 마무리를 잘하고 귀대해야 한다고 당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한폭의 그림처럼 펼쳐진 백학동 살림집들을 환한 미소속에 바라보시면서 황홀하다고, 기쁜 일이면 이처럼 기쁜 일이 또 어디에 있으며 보람이면 이보다 더 큰 보람이 어디에 있겠는가고, 늘 강조하는것이지만 인민들을 위한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말씀하시였다.







하늘은 우리에게 무서운 재난을 가져다주었지만 원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에도 생각지 못할 그나큰 복을 안겨주시였습니다. 정녕 우리 원수님은 인민의 위대한 하늘이십니다.



황해북도 은파군 대청리일대의 큰물피해상황을 현지에서
료해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주체109(2020)년 8월 6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은파군주민들을 모두 사전에 안전한 지대로 소개시켜 인명피해는 없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정말 다행이라고 하시면서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사회안전기관을 비롯한 군급지도적기관들에서 집을 잃은 주민들을 군당위원회, 군인민위원회를 비롯한 사무공간들과 공공건물들, 개인세대들에 분숙시키고 안정시키며 위로해주기 위한 사업을 책임적으로 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국무위원장 예비량곡을 해제하여 피해지역 인민들에게 세대별로 공급해주기 위한 문건을 제기할데 대하여 해당 부문에 지시하시였다.



졸지에 집을 잃고 한지에 나앉았을 때에는 너무도 억이 막혀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원수님께서 국무위원장 예비량곡과 많은 의약품들을 보내주시며 거듭되는 사랑을 안겨주실 때 그 은정이 너무 고마워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또 흘렸습니다.







황해북도 은파군 대청리일대의 피해복구건설현장을 현지지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주체109(2020)년 9월 11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금과 같은 어려운 때 우리 인민은 우리 당만을 바라보고있을것이고 우리 당이 취하는 조치를 기다릴것이라고, 우리 인민이 자연재해에 의하여 한순간이라도 락심하게 하거나 생활상불편을 느끼게 하면 안된다고 하시면서 이민위천을 숭고한 좌우명으로 삼고 인민을 생명의 뿌리로 하고있는 우리 당에 있어서 인민의 믿음에 보답하는것보다 더 중차대한 사업은 없다고, 그래서 우리 당은 모든 국가적잠재력을 인민의 행복을 지키기 위한 사업에 총동원시켜 전례없는 대복구전투를 전개하고 혁명적당군을 전국각지의 자연재해복구전선에 주력으로 내세웠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최근에 련이어 들이닥친 엄청난 장마철폭우와 태풍피해로 인해 몰려드는 근심과 고충도 없지 않지만 위대한 인민을 위해 떠안은 고민을 더없는 무상의 영광으로 받아안고 우리 당은 인민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해나갈것이라고, 하늘같은 인민의 믿음에 무조건 보답할것이라고 하시면서 인민군대와 함께 오늘의 시련을 힘차게 극복해나갈 결심을 피력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덕으로 인민사랑의 새 전설이 꽃펴난 대청땅에 사회주의농촌의 본보기마을이 훌륭히 일떠서 새집들이경사가 났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관, 멸사복무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피해복구에 떨쳐나선 인민군장병들은 기적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불과 2개월 남짓한 기간에 820여동의 살림집을 훌륭히 완공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은덕으로 우리 대청땅에
행복의 별천지가 펼쳐졌습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6차 정치국회의를 사회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주체109(2020)년 8월 13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재해성폭우와 큰물에 의한 피해상황을 종합한 자료를 통보하시면서 집과 가산을 잃고 림시거처지에 의탁하여 생활하고있는 수재민들의 형편과 고통이 이루 말할수 없을것이라고 하시며 지금과 같은 때에 다른 그 누가 아닌 우리 당이 그들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며 인민들이 겪는 고생을 함께 하고 그것을 덜어주기 위하여 그들곁으로 더 다가가야 한다고 절절하게 말씀하시였다.

황해남도의 태풍피해지역을 돌아보시며 피해상황을 료해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주체109(2020)년 8월 27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들이 어렵고 힘들 때 그들속에 깊이 들어가 고락을 같이 하면서 힘과 용기를 주고 성심성의로 도와주는 것이 우리 당이 응당 해야 할 최우선과업중의 하나이라고, 기쁠 때도 힘들 때도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있는 당중앙위원회가 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당중앙위원회 각 부서들이 황해남도의 농경지와 농작물피해복구사업에 모두 동원될데 대하여 지시하시였다.

피해복구한 황해북도 금천군 강북리를 현지지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주체109(2020)년 9월 14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아름다운 한폭의 그림을 련상시키며 사회주의향기를 내뿜는 사회주의농촌 본보기마을을 바라보시며 지난날 락후성에 피해까지 겹쳐 보기에도 처참하기 그지없던 농촌마을을 이렇게 짧은 기간동안 흔적도 없이 털어버릴수도 있는가고, 마치 다른 세상을 보는것만 같다고 하시면서 우리 당의 원대한 농촌건설구상, 지방건설방침이 우리 군인들의 애국적헌신과 투쟁에 의하여 또 하나 가장 정확히 집행되는 성과가 이룩되였다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번에 폭우와 강풍피해를 입었던 이곳 강북리를 새로 일떠세웠는데 주민들, 농장원들이 좋아하는가고 거듭 물어보시고나서 그들이 좋아한다니 정말 기쁘다고, 그들이 좋다고 한다면 분명 우리 당이 잘한 일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간만에 또 한번 가슴이 뿌듯하고 발걸음이 가벼워진다고 기쁨을 금치 못하시며 이곳 주민들이 새 마을과 살림집에 정을 붙이고 부디 행복하게 잘살며 이 고장에 언제나 복이 깃들기를 바란다고 마음속깊이 축복하시였다.

건설중에 있는 김화군피해복구현장을 현지지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주체109(2020)년 10월 1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군당위원장과 건설부대 지휘성원들로부터 당에서 취해준 조치에 따라 애로와 난관속에서도 비약적인 속도로 훌륭한 살림집들이 일떠서는것을 보고 현지주민들이 밥짓는 속도보다 더 빨리 살림집이 솟아난다고, 이제는 하늘이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을 집이 생겨 좋다고 했다는 반영을 들으시고는 우리 인민들이 그렇게 좋아했다니 정말 기쁘다고, 인민들의 솔직하고도 꾸밈없는 목소리에 힘이 난다고, 이제 건설한 살림집들에 대한 평가도 인민들로부터 받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피해복구건설투쟁에서 설계와 시공에 이르는 건설 전 공정이 인민대중제일주의, 인민존중의 관점과 원칙에 의해 전개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오늘의 시련은 우리를 락심하게 한것이 아니라 바위처럼 억세지고 더욱 전진하게 하였으며 우리 인민이 얼마나 충성스럽고 애국적이며 강의한 인민인가를 더 잘 알게 하였다고 하시면서 이런 충직한 인민의 모습에서 자신께서는 대단히 큰 힘을 얻고있으며 이 세상 넘지 못할 난관이 없다는것을 다시금 절감하고있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돈 한푼 안들이고 이런 희한한 집에서 살게 된것이 너무도 꿈만 같아 차마 믿어지지 않습니다. 재난당한 사람들이 불행이 아니라 복을 받아안는 이런 별세상을 우리 원수님품이 아니고서야 어찌 상상이나 할수 있겠습니까.







태풍9호에 의한 자연재해복구전투조직을 위한 당중앙위원회 정무국 확대회의를 현지에서 소집하시고 피해지역을 돌아보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주체109(2020)년 9월 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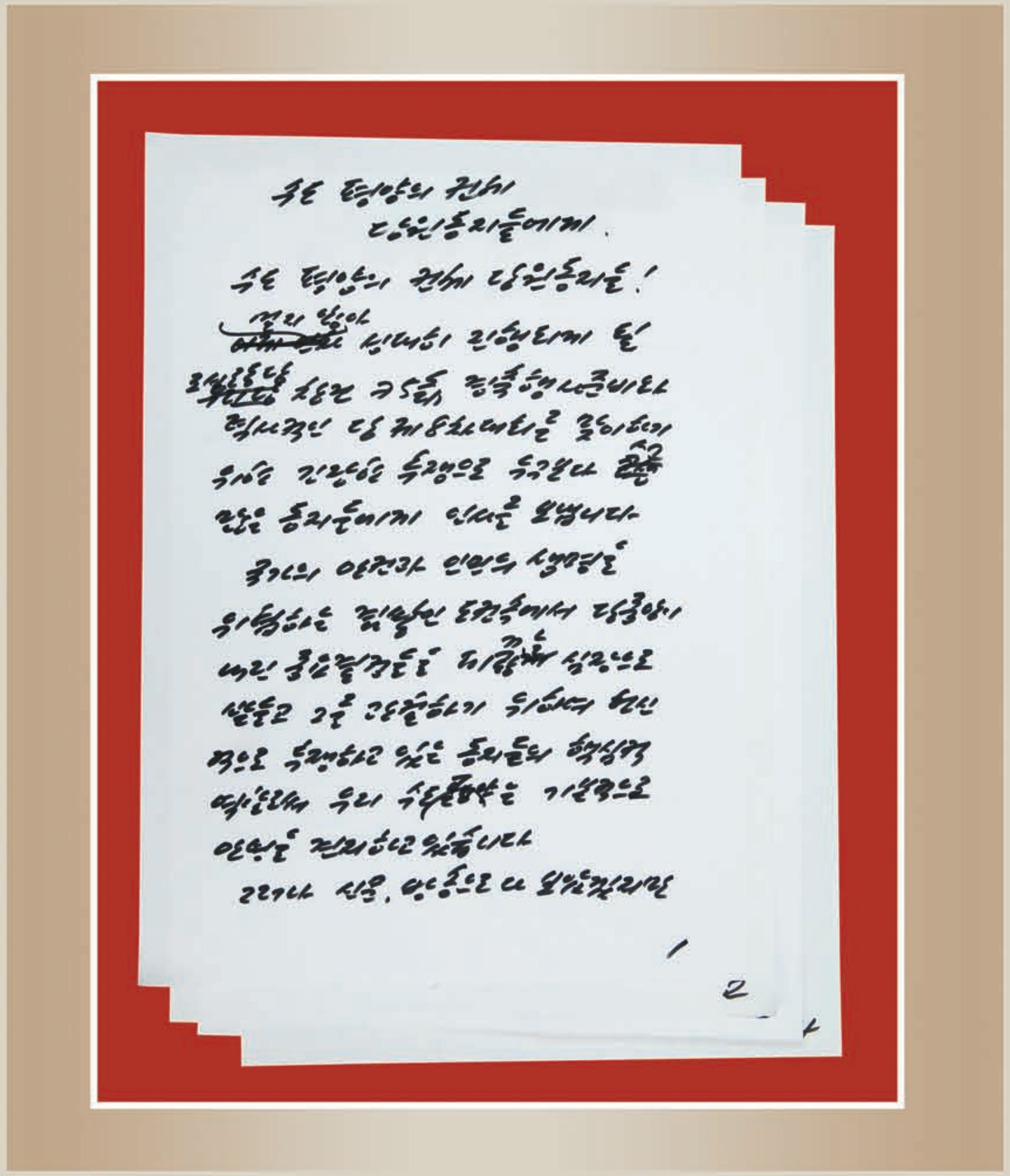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번 피해복구사업을 자연재해를 털어버리기 위한 단순한 경제실무적인 복구건설과정만이 아닌 중요한 정치사업과정으로, 일심단결을 강화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전사회적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과 언제나 고락을 함께 하며 이겨내는 고상한 정신도덕적미덕을 사회주의국풍으로 확립하기 위해서도 수도에서 지방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는것이 좋다고, 나라가 어렵고 힘든 때 마땅히 당원들 특히 수도의 당원들이 앞장서는것이 우리 사회의 일심단결을 더욱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것이라고 하시였다.

수도 평양의 전체 당원들에게 공개서한을 보내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주체109(2020)년 9월 5일




수도 평양의 전체
당원동지들에게.

수도 평양의 전체 당원동지들!

10월 10일이 눈앞에 박두하였는데 형편이 곤난하고 시간이 촉박하다고 하여 새로 피해를 입은 함경남북도의 수많은 인민들이 한지에서 명절을 쇠게 할수는 없습니다.

당의 걱정과 보살핌의 손길로, 수도 평양의 따뜻한 정으로 피해지역 인민들을 극진히 위로하고 한시바삐 재난을 털어버리도록 정성다해 지원하고 투쟁할것을 당중앙은 수도당원동지들에게 호소합니다.

김 정 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에 기어이 보답할 수도당원사단 전투원들의 불같은 일념 금수산태양궁전 광장에 도도히 굽이쳤다.









수도당원사단의 전투원들은 공사는 방대하고 조건도 불리하였지만 당에 대한 충성심과 투쟁열로 피해복구 전역을 뜨겁게 달구며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6차확대회의를 지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주체109(2020)년 9월 8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중앙군사위원회는 검덕지구의 피해와 복구건설 규모를 검토하고 복구건설을 또다시 인민군대에 위임하기로 하였다고, 인민군대만이 또 하나의 전선을 전개할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함경남도 검덕지구의 태풍피해복구투쟁과 관련한 당중앙군사위원회 명령서에 친필서명하시고 오늘의 태풍피해복구투쟁은 조국보위이고 인민보위라고 하시면서 자연의 광란이 아무리 사납고 우리에게 도전과 시련이 중중첩첩 막아나선다해도 일심단결, 군민일치의 위대한 전통의 기치를 틀어쥐고 반드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함경남도 검덕지구피해복구현장을 현지지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주체109(2020)년 10월 13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실지 와보니 검덕지구의 피해가 생각보다 대단히 컸다고 하시면서 혹심한 피해흔적을 말끔히 가셔내고 복구건설의 터전을 힘차게 다져나가는 인민군 군인들의 로력적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사장을 돌아보시면서 건설물들의 질이 높다고, 시공을 하나하나 깐지게 하고 정성을 들였다는것이 알린다고 하시며 건설에 동원된 군인들의 일솜씨를 높이 치하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살림집건설에 바쳐진 군인들의 량심과 숨은 노력은 그 집에서 살게 될 인민들이 알아주고 인민들이 평가하게 될것이라고 하시면서 당과 인민에게 무한히 충효한 인민군대의 정성이 건설물마다에 깃들게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대흥과 검덕, 룡양의 세기적인 락후를 싹 털어 버리고 새 세기의 요구에 맞는 현대적인 살림집들을 건설하여 우리 나라 굴지의 대규모광물생산기지인 검덕지구를 삼지연시 다음가는 국가적인 본보기산간도시, 광산도시로 훌륭히 전변시킬 원대한 구상과 설계도를 펼쳐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혁명의 시계초침은 인민군대의 발걸음속도를 따라 돌고있고 인민군대의 발걸음속도는 곧 우리 혁명의 전진속도라고 하시면서 인민군대가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만족을 모르는 우리 당의 공격속도에 발맞추어 질풍같이 내달림으로써 우리 조국의 부럼없는 미래를 하루빨리 앞당겨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인민들이 당하는 고통을 그리도 가슴아파하시며 더 따뜻이 품어주시고 고락을 함께 하시는 자애로운 우리 원수님의 뜨거운 진정이 오늘의 천지개벽을 펼쳐놓았습니다.



함경남도 자연재해복구건설장들을 돌아보시며 건설사업을 지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주체109(2020)년 10월 14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전문건설자들 못지 않게 살림집들을 손색없이 잘 지였다고, 이 집들은 수도당원들의 당에 대한 충성심의 결정체이라고, 최정예수도당원사단의 전투력이 실천에서 남김없이 과시되였다고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번에 우리 수도핵심당원들의 당성, 인민성, 혁명성이 검증되였으며 그들의 불타는 충성심과 투쟁열이 피해복구전역을 뜨겁게 달구어주며 전체 건설자들을 새로운 위훈과 혁신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고 복구건설을 가속화하는 추동력이 되고있다고 긍지높이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살림집건설을 지켜보면서 하루하루 크나큰 기대와 희망을 안고 기다리는 피해지역 인민들이 정말 좋아할것이라고, 우리 인민들에게 삶의 새 터전, 행복의 보금자리를 안겨줄 완공의 날을 하루라도 앞당기기 위해 모두가 더욱 분발하고 이악하게 투쟁해나가자고 절절히 호소하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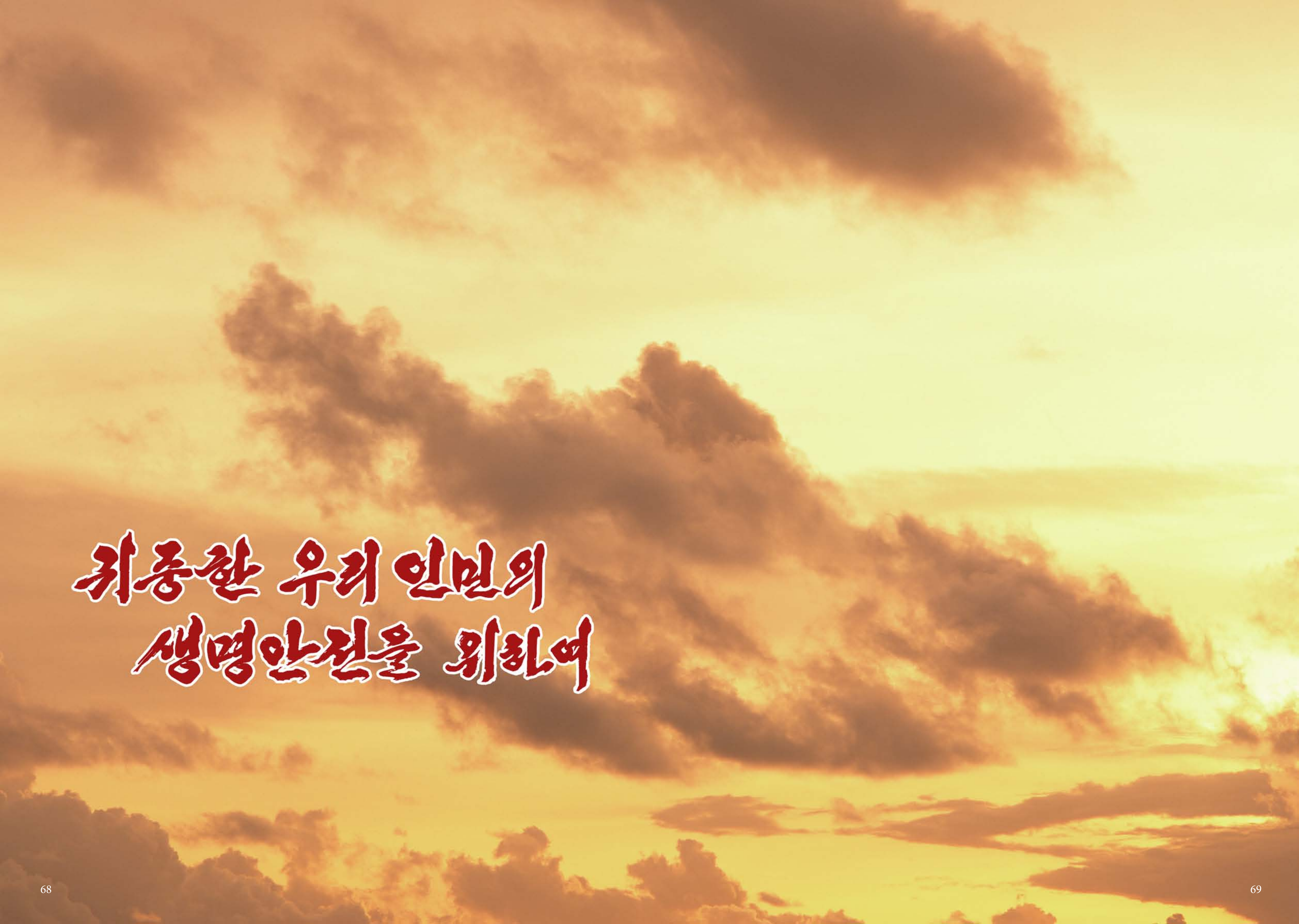
뜨락에 아이들 뛰놀고 내 집에 웃음꽃 넘칠 때면
행복의 이 요람 지켜준 그 사랑 어려와 목메네
모진 풍파를 다 막아주며 보살펴주시는 원수님
뜨거운 정이 뜨거운 정이 사무쳐와 눈굽젖네
내 어이 꿈엔들 잊으랴 피줄로 흘러든 그 정을

창밖에 비바람 세차도 마음에 그늘이 있었던가
그 음성 곁에서 울려와 언제나 근심을 몰랐네
해빛을 안고 천리만리길 찾아오시는 원수님
사랑의 자욱 사랑의 자욱 이 뜨락에 새겨있네
내 어이 숨진들 잊으랴 숨결로 간직한 그 정을

(노래 《그 정을 따르네》 중에서)



귀중한 우리 인민의
생명안전을 위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를 지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주체109(2020)년 2월 27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가 취하는 방역조치들은 단순한 방역사업이 아니라 인민보위의 중대한 국가적사업이며 당중앙위원회의 무거운 책임이라고 하시면서 모두가 당중앙의 결정과 지시를 철저히 관철하고 국가의 안전과 인민의 생명안전보장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상확대회의를 운영집행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주체109(2020)년 7월 2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개성시에 치명적이며 파괴적인 재앙을 초래할수 있는 위험이 조성된것과 관련하여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비상확대회의를 긴급소집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회의에서 모두가 비상사태에 직면한 현실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사고와 행동의 중심을 잃지 말고 책임성과 헌신성을 안고 당중앙의 령도에 충실하고 철저하며 당중앙의 두리에 더욱 굳게 단결하여 맞다든 방역위기를 타개함으로써 반드시 우리 인민의 안녕과 조국의 안전을 사수하자고 호소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 정무국회의를 사회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주체109(2020)년 8월 5일







회의에서는 국가최대비상체제의 요구에 따라 완전봉쇄된 개성시의 방역형편과 실태보고서를 료해하고 봉쇄지역 인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식량과 생활보장금을 당중앙이 특별지원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결정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긴급조치들을 취할것을 해당 부문에 지시하였다.



개성시주민들의 생활에 자그마한 불편도 있을세라 우리 시가 봉쇄된 첫날부터 식량과 먹는기름, 생활용품, 전기, 석탄보장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보살펴주신 원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이렇게 특별지원물자까지 보내주시니 정녕 인민을 위함이라면 사랑과 정을 깡그리 다 바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여 우리는 세계적인 대재앙도 두렵지 않으며 오늘의 방역전에서 반드시 승리할것입니다.

















비상방역사업과 관련하여 진행된 중요당회의들

- 주체109(2020)년 2월 27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 진행

- 주체109(2020)년 4월 1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 진행

- 주체109(2020)년 7월 2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4차 정치국 확대회의 진행

- 주체109(2020)년 7월 2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상확대회의 긴급소집

- 주체109(2020)년 8월 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 정무국회의 진행

- 주체109(2020)년 8월 2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7차 정치국 확대회의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정무국회의 진행

- 주체109(2020)년 9월 29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8차 정치국회의 진행

- 주체109(2020)년 11월 1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0차 정치국 확대회의 진행

- 주체110(2021)년 9월 2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정치국 확대회의 진행

… …



2022년 5월 8일 국가비상방역지휘부와 해당 단위들에서는 수도의 어느한 단체의 유열자들에게서 채집한 검체에 대한 엄격한 유전자배렬분석결과를 심의하고 최근에 세계적으로 급속히 전파되고있는 오미크론변이비루스 《BA. 2》와 일치하다고 결론하였다.

하여 2020년 2월부터 2년 3개월에 걸쳐 굳건히 지켜온 우리의 비상방역전선에 파공이 생기는 국가최중대비상사건이 발생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 정치국회의를 사회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주체111(2022)년 5월 12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력사의 온갖 곡경을 이겨내고 위대한 생활력을 발휘해온 우리 당과 국가의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와 일심단결된 우리 인민의 힘은 이번 방역대전에서 승리할수 있는 가장 위력한 담보이라고 하시면서 모든 당조직들과 정권기관들이 인민들의 생명안전을 사수하기 위한 오늘의 방역대전에서 당과 혁명에 대한 충실성, 인민에 대한 헌신성, 자기 임무에 대한 책임성을 실천으로 검증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국가비상방역사령부를 방문하시고 전국적인 비상방역상황을 료해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주체111(2022)년 5월 12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국가비상방역사령부안의 지휘실들을 돌아보시면서 조성된 방역위기상황에 대처하여 국가방역사업을 최대비상방역체계로 이행한 후 하루동안의 방역실태에 대하여 점검하시고 전국적인 전파상황을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직면한 보건위기상황을 하루속히 역전시키고 방역의 안정을 회복하며 우리 인민의 건강과 안녕을 수호하는것은 우리 당앞에 나선 가장 중차대한 도전이고 지상의 과업으로 된다고 하시면서 방역전쟁을 승리적으로 주도해나갈 당중앙의 결심과 의지, 전략전술을 천명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협의회를 지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주체111(2022)년 5월 14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당중앙이 력사의 시련앞에서 다시한번 자기의 령도적 역할을 검증받을 시각이 왔다고 하시면서 우리가 무엇때문에 필요한 사람들인가, 우리가 누구를 위해 목숨까지 바쳐 싸워야 하는가를 더 깊이 자각할 때이라고, 우리 당은 자기의 중대한 책무앞에 용감히 나설것이며 무한한 충실성과 헌신으로 조국과 인민의 안전과 안녕을 전적으로 책임질것이라고 하시면서 방역전에서 반드시 대승을 이룩할 결심과 의지를 거듭 피력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언제나 인민과 운명을 함께 할 결의와 하루빨리 온 나라 가정에 평온과 웃음이 다시 찾아들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마음으로 가정에서 준비한 상비약품들을 본부당위원회에 바친다고 하시면서 어렵고 힘든 세대에 보내달라고 제의하시였다.

또다시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협의회를 지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주체111(2022)년 5월 15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회의에서 인민군대 군의부문의 강력한 력량을 투입하여 평양시안의 의약품공급사업을 즉시 안정시킬데 대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특별명령을 하달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나라의 현 방역형세에 대한 상세한 분석에 기초하여 방역정책을 보다 효률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방도적문제들을 토의하시고 당면한 투쟁방향과 목표를 제시하시였다.

평양시안의 약국들을 찾으시여 의약품공급실태를 직접 료해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주체111(2022)년 5월 15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대동강구역에 위치한 약국들에 들리시여 의약품공급 및 판매정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최대비상방역체계가 가동된 이후 무슨 약들이 공급되였는가, 약품들을 규정대로 보관하고있는가, 약국들이 24시간 봉사체계로 전환하였는가, 환자들이 찾아왔을 때 상담은 하는가, 해열제와 항생제는 어떤것들이 있는가, 주민들이 지금 제일 많이 찾는 약은 어떤 약들이며 가격은 얼마인가를 세심히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오늘의 방역대전은 철두철미 인민을 위한 방역, 인민자신이 주인이 되여 시행하는 인민적인 방역이라고 하시면서 모든 일군들이 조국과 인민의 안전과 안녕을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해나갈데 대하여 거듭 강조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회의를 지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주체111(2022)년 5월 17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생활분야를 안정시키기 위한 배가의 노력을 기울일데 대하여 지적하시면서 생활보장과 생활물자공급을 더욱 짜고들고 주민들의 치료수요와 조건을 최대한 보장해주기 위해 각방의 노력을 다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국가비상시국하에서 전당을 다시한번 활화처럼 불러일으켜 우리 당 특유의 세련된 령도력을 력사와 시대앞에 검증받고 자기의 책임을 다하게 함으로써 반드시 조국과 인민의 안녕을 수호하고 또다시 영웅조선의 힘, 영웅조선의 정신을 만천하에 과시하게 할것이라고 확언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협의회를 지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주체111(2022)년 5월 21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나라에 닥쳐온 방역위기앞에서의 당의 임무, 당의 역할, 당일군들의 책무에 대하여 재삼 강조하시면서 인민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고민하는 곳에 우리 당조직과 당일군들이 서있어야 한다고, 인민에 대한 무한한 헌신과 변함없는 충심을 안고 인민보위, 인민사수전의 방탄벽이 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협의회를 지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주체111(2022)년 5월 29일



정치국은 전국적범위에서 전염병전파상황이 통제, 개선되고있는데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방역초기에 쌓은 경험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방역전황을 계속 안정향상시켜나가기 위한 문제들을 토의하였다.

정치국은 전염병전파상황이 안정되는 형세에 맞게 방역규정과 지침들을 효률적으로 신속히 조종실시하기 위한 문제를 심의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사회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주체111(2022)년 6월 8일-10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악성전염병위기를 최종적으로 해소하고 안정을 회복하며 국가의 방역능력, 위기대응능력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는데서 나서는 전략전술적인 방략들이 명시된 보고를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금의 방역전쟁은 앞으로의 그 어떤 보건위기속에서도 국가와 인민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사수할수 있는 값비싼 경험과 책략을 얻는 계기로 되며 일치단결된 우리 사회의 조직력과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이 최대로 발양되도록 당사업과 경제조직사업, 보건의료사업을 더욱 강화하여 방역안정을 되찾는데서 세계가 알지 못하는 기적을 안아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신심과 용기를 가지고 비상방역사업을 주도세밀하게, 능숙하고 실속있게 조직전개하며 나라의 방역능력, 위기대응능력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귀중한 우리 인민의 건강과 안녕을 철저히 지켜내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가정에서 마련하신 약품들을 조선로동당 황해남도 해주시위원회에 보내시였다 주체111(2022)년 6월 15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황해남도 해주시에서 급성장내성전염병이 발생한것과 관련하여 가정에서 마련하신 약품들을 조선로동당 황해남도 해주시위원회에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가정에서 마련하신 약품들을 본부당위원회에 전하시면서 지원약품들을 해주시당위원회에 보내주며 시당위원회가 전염병으로 앓고있는 대상세대들을 구체적으로 장악하고 약품들을 빨리 전해주어 치료사업에 조금이라도 보태게 해달라고 당부하시였다.

평양은 멀리 떨어져있어도 원수님은 언제나 곁에 계시며 친혈육보다 더 뜨거운 사랑과 정으로 우릴 지켜주고 보살피고 계십니다. 정녕 원수님품을 떠나 우린 못삽니다.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일심일체의 위력으로 사상최악의 위기를 이겨낸 기적의 91일







인민들의 생명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군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원수님께서 키우신 인민군대가 세상에서 제일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 군대가 왔구나. 이젠 우리가 살았어! 고맙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의 방역, 보건일군들은 당과 국가가 맡겨준 인민의 생명수호를 위한 방역전에 서슴없이 온몸을 내대고 누구도 물러서거나 주저앉지 않았으며 자기 임무에 끝까지 충실하였다.

전국의 방역, 보건일군들은 평소의 몇십배에 달하는 과중한 부담속에서도 24시간 방역초소와 치료초소를 떠나지 않았다.





우리 나라에서 악성전염병이 전파되기 시작한 초기 수십 만명에 달하였던 하루유열자수가 한달후에는 9만명이하로 줄어들었으며 지속적인 감소세를 유지하다가 7월 29일부터는 악성비루스감염자로 의심되는 유열자가 한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국가비상방역사령부의 통보에 의하면 7월 29일부터 8월 9일까지 전국적으로 악성비루스에 의한 유열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위대한 우리 인민이 쟁취한 빛나는 승리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에서 중요연설을 하시였다 주체111(2022)년 8월 10일









다시말하여 우리가 이룩한 값비싼 승리는 우리당 방역정책의 승리이고 우리 국가의 위기대처전략의 승리이며 우리 인민특유의 강인성과 일심단결의 승리이고 우리식 사회주의의 제도적우월성이 안아온 위대한 승리입니다.

김 정 은

최대비상방역전의 승리에 공헌한 방역 및 보건부문 일군들과 과학자들을 만나시고 축하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주체111(2022)년 8월 10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최대비상방역기간 당과 정부의 인민적이며 과학적인 방역정책, 보건정책을 충직하게 받들어 악성전염병과의 방역전에서 특출한 기여를 한 일군들과 과학자들 한사람한사람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시며 격려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과 국가가 맡겨준 인민의 생명수호를 위한 전구들에서 힘과 지혜와 정성을 아낌없이 바치며 분투, 활약한 방역, 보건전사들은 전화의 나날 피로써 조국과 인민의 안녕을 결사보위한 화선용사들과 다를바 없는 우리 시대의 참된 애국자들이라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최대비상방역전에 참전하여 혁혁한 위훈을 세운 조선인민군 군의부문 전투원들을 만나시고 뜻깊은 축하연설을 하시였다

주체111(2022)년 8월 18일





나라가 위급한 상황에 처하였을 때에 전쟁을 위하여 준비된 인민군대 군의부문이 제일선에 진입한것자체가 전국의 비상방역분위기에 신심을 주고 열병전파에 우려하던 인민들에게 용기를 주는데서나 방역전황을 역전시키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였습니다.

김 정 은





우리 당은 인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더 많은 혜택을 안겨줄 우월한 정책과 시책들을 변함없이 실시하고 끊임없이 늘여나갈것이며 인민들이 꿈속에서도 그려보는 부흥번영의 리상사회를 최대로 앞당겨올것입니다.

김 정 은



이 세상에 우리 어머니처럼
근심많은 어머니 어데 있던가
동트는 이 나라 새벽길을 먼저 걷고
숫눈길도 앞서 걷는 우리 어머니
눈비바람 막아주며 우릴 키운 품
아 그 고생 우린 못잊어
어머니 어머니 우리들의 어머니
둘도 없는 우리 어머니

이 세상에 우리 어머니처럼
제일 좋은 어머니 더는 없으리
열백번 이 땅에 다시 태여난다 해도
어머니의 품에서만 살고싶어라
우리 심장 그 뜻으로 고동치리라
아 영원히 함께 하리라
어머니 어머니 우리들의 어머니
조선로동당이여

(노래 《우리 어머니》 중에서)



인민사수전의 최전방에 서시여

편　　집　김화명
글　　권지혜
사　　진　김유정
낸　　곳　평 양 출 판 사
인 쇄 소　평 양 인 쇄 공 장
인　　쇄　주체111(2022)년 10월 16일
발　　행　주체111(2022)년 10월 17일

ㄱ-1553ㄷ

